# ‘길의 천국’ 섬진강 둘레길 관광객 몰린다

## 기찻길·자전거길·힐링숲길 등 인기

## 기차마을대축제 10만명 다녀가기도

섬진강을 따라 기차·자동차·자전거·사람이 다닐 수 있는 섬진강 둘레길이 주목받고 있다. 바다를 제외한 거의 모든 ‘길’의 풍경을 가지고 있는데다 인근 숲과 마을과 연계돼 관광객들의 발길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전남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섬진강 주변에 대한 피톤치드, 음이온, 총부유세균, 미세먼지 등 조사하고 안전관리 시설을 보강해 안전하고 건강한 명품길로 만들어갈 방침이다.

15km의 섬진강 둘레길은 강 중심으로 양쪽을 지나는 자전거길, 국도 17호선, 철쭉 꽃길 관광열차로 유명한 기찻길, 힐링 숲길 등을 모두 합쳐 이르는 말이다.

이 길들은 기차마을에서 오곡시내를 거쳐 제방길로 이어지고 주변에 숙박시설과 심청 이야기 마을, 두꺼외갓집 체험마을, 가정 녹색농촌체험마을, 봉존 농촌체험학교 등이 즐비해 최근 갖가지 연계 프로그램도 선보이고 있다.

접근성이 뛰어난데다 소나무·편백·활엽수림이 함께 한 숲과 물이 흐르는 작은 계곡이 많아 산소량이 많고, 음이온이 풍부한 힐링 노선이다.

군은 섬진강 둘레길 홍보를 위해 지난 3일 곡성군 건강팔팔마을 66곳 약 6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곡성 청소년 야영장에서 숲길, 자전거길, 철죽길로 이어지는 ‘섬진강 둘레길에서 건강 걷기 행사’도 가졌다.

증기기관차가 달리는 철로변과 만개한 철쭉을 배경으로 곡성 청소년 야영장에서부터 약 3.6km에 걸친 섬진강 둘레길을 걷는 이번 행사에는 아름다운 꽃을 즐기고 건강도 챙기려는 수 천명의 주민과 관광객들이 참여했다.

그동안 건강팔팔마을 주민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매주 2차례씩 마을 걷기지도자와 함께 걷기를 실시해 왔다.

이 길은 지난해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의 ‘우리마을 녹색길 조성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섬진강 둘레길 일원에서 열린 2013 섬진강기차마을대축제에 1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75%나 증가한 수치다. 오는 24일부터 6월 10일까지는 ‘제3회 곡성세계장미축제’가 열린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여수 금호미쓰이화학 1사1촌 자매결연

## 지역민에 ‘나눔봉사활동’

여수국가산단내 금호미쓰이화학이 1사1촌 자매결연을 통해 지역민을 위한 나눔활동에 돌입했다.

7일 금호미쓰이 여수공장과 소라종합사회복지관은 “최근 여수농협 화정지점에서 금호미쓰이 임직원과 소라복지관 관계자,여수농협, 화정면 둔병도 주민 등 50여명이 참여해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 협약식’을 맺었다 “고 전했다. 〈사진〉

이번 협약식은 열악한 환경의 섬주민들이 지역기업과 1촌결연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라복지관 등이 추진해 마련됐다. 금호미쓰이 봉사단은 둔병도 마을경로당에 최신 에어컨을 기증하고 이미용봉사와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소라복지관 김칠곤 관장은 “ 지역기업과 섬마을 1촌 맺기로,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된 섬마을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금호미쓰이화학 손영원 공장장은 “ 의료, 이·미용서비스 뿐 아니라 앞으로 집수리 등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계속해 갈 것” 이라고 전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공업용지 부족한 여수산단

# 중흥지구 22만㎡ 조기 분양

## 시, 공장·지원시설 용지 7월 중 공고

여수시가 공장용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국가산단 공업 용지를 조기 분양하기로 했다.

시는 7일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국가산단 연관단지 중흥지구 총 43만9000㎡ 가운데 91필지, 22만5000㎡를 공장 및 지원시설 용지로 도상 분양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공장용지는 17필지, 9만1000㎡로 최소 4000㎡~7000㎡ 단위로 분양하며, 조립금속제품이나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종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지원시설용지는 74필지, 13만5000㎡로 최소 1000㎡~2600㎡로 공급하며, 생산지원이나 후생지원, 공공지원 시설이면 분양받을 수 있다.

시는 조기공급을 목표로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는 분양을 준비하고 있으며 자세한 분양계획은 오는 7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8월말 준공 예정인 국가산단 연관단지 조성공사는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면서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며 “최근 공장용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조기 분양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분양이 완료되면 90여개의 기업이 유치되고, 15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싱그러운 차밭 분주한 손놀림

7일 싱그러운 신록으로 물든 보성군 회천면 차밭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연둣빛 새순의 찻잎을 수확하는 아낙들의 손놀림이 분주하다. 보성군은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동안 제39회 보성다향제 녹차대축제를 개최한다.

/보성=김용백기자 kyb@kwangju.co.kr

##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수립

## 내년 7월까지 용역 착수

광양시가 최근 관할 행정구역(497.647㎢)를 대상으로 내년 7월까지 ‘2030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변경내용을 수용하고 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요 지표와 토지의 개발·보전, 기반 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 전략 등을 제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정책 결정 및 행정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과 지역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반영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중 기본계획용역 착수보고회 개최를 시작으로 다음달부터 관계부서 의견 수렴 및 현황조사, 10월중 중간보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전북

## 내장산만 300번 오른 사나이

### 김석환씨 화제…에베레스트 30회 등반과 비슷

국립공원 내장산만 300번이나 오른 40대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는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크를 30차례 오른 것과 비슷한 거리다.

정읍 내장상동에서 내장산자연학교와 택견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석환(45)씨는 지난 6일에도 ‘내장산 오르기’를 계속했다. 3~4년 전부터 오르기 시작했지만 지난해서야 등산 회수를 SNS에 남겨 등반 횟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300번은 이미 지난 3월30일 돌파했다.

김씨는 “내장산을 만나는 시간은 위대한 자연과 자신의 영혼의 만남이며 몸과 마음의 독소를 빼는 시간이다”며 “단풍도 세계적이지만 그 참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김씨의 발걸음은 단순한 산행이 아니다. 산속 모습 그대로를 SNS로 지역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까지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게를 지고 오르거나 맨발로, 때로는 손과 발로 걷는 호보를 하는 등 그가 내장산에 오르는 방법도 각양각색이다.

그는 “십 수년간 체득한 무예 수련 기법들이 산을 오르내리면서 발휘하는 것이다”며 “내장산 산행 코스 가운데 가장 험한 길만 찾아다닌다”고 덧붙였다.

이러다 보니 이제는 SNS에 내장산 구석구석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엮어지면서 ‘정읍 민간홍보대사’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안행부 ‘국민공감형 콘텐츠 제작 과제 공모’ 선정

# 전북 ‘로컬푸드’ 애니메이션 제작

전북지역에서 인기를 끄는 ‘로컬푸드’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돼 전국에 보급된다.

로컬푸드가 안전행정부의 ‘국민공감형 콘텐츠 제작과제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이다.

안행부는 최근 생활과 밀접한 정책, 제도, 서비스 등을 국민에게 알릴 목적으로 공모에 나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보탬이 되는 로컬푸드를 그 사례로 뽑았다.

이에 따라 로컬푸드 사례는 안행부의 제작비 지원을 받아 멀티미디어형 콘텐츠 중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다.

완주군과 전주시 등에서 활성화한 도내 로컬푸드 사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농촌 활력 우수사례로 포함되기도 했다. 애니메이션이 제작되면 대한민국 정부 포털(http : //www.korea.go.kr)이나 전북도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뉴스레터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전달된다.

김선경 전북도 홍보기획과장은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관계를 확보, 신선한 먹을거리 공급체계의 성공모델을 만들고 지역순환농업체계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박금석기자 · 전북취재본부장

## 농가 AI발생 대응훈련

전북 익산시청 공무원들이 6일 익산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중 하나로 AI 발생에 따른 대응훈련을 하고 있다. 훈련은 농가에서 AI가 발생했다는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살처분, 이동통제초소·소독장소 설치운영 등을 중점을 두고 펼쳐졌다. /연합뉴스

## 고창 복분자주 1만5000병 미국 수출

### 연내 2억어치 선적 예정

고창복분자주가 대미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6일 배상면주가 고창LB는 복분자주 ‘빙탄복’을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아산면 소재 공장에서 선적작업을 했다.

미국 LA, 뉴욕 등지로 수출되는 이번 물량은 5500만원 상당의 빙탄복 1만5000병(5500ℓ)으로, 올해 내에 추가로 미국에 2억원 상당 물량을 수출할 예정이다.

‘시원하게 복을 삼킨다’는 의미의 빙탄복은 국내 최초 탄산 과실주로서 자연발효로 빚은 복분자술을 저온 장기 숙성하고 탄산을 가미하여 만든 것이다. 상큼하고 부드러운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며, 알콜 함량이 낮고 빨대로도 마실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젊은층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강수 고창군수는 “최근 FTA체결에 따라 저가 와인이 공급되면서 국내 전통주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해외 고급시장에 고창 복분자 가공제품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 도교육청,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전수조사

전북지역 청소년의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이용습관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이뤄진다. 중독성이 높은 학생에게는 상담과 치료가 지원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8~28일 도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이용현황에 관한 전수조사를 한다. 조사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1만 7천781명, 중학교 1학년 2만 3천33명, 고등학교 1학년 2만 5천380명 등 모두 6만 6천194명이다.

조사는 자기기입식 설문방식으로 이뤄진다. 설문항목은 ▲인터넷 이용으로 건강이 이전보다 나빠진 것 같다 ▲인터넷을 많이 해 머리가 아프다 ▲인터넷을 못하면 초조해진다 등 15개다.

/전주=박금석기자 · 전북취재본부장

## 단신

### 순창군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개선작업 완료

순창군이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개선사업을 최근 완료했다.

7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전국 최초로 보조사업시스템을 도입해 활용해 왔으나 보조사업 추진시 재정관리시스템의 예산현액과 지출품의 자료가 연동되지 않아 자료를 이중으로 입력함으로써 시간 낭비와 불편함이 따랐었다.

이를 해소키 위해 순창군은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 하고, 올 예산에 6050만원을 확보했다.

군은 지난 2일 재난상황실에서 실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조사업시스템 고도화 완료에 따른 프로그램 사용교육을 실시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 정읍 재능기부 축제 참여자 모집

정읍시는 (사)정읍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오는 6월8일 정읍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3 정읍재능기부 축제’에 참여해 재능을 기부할 개인 및 단체 재능기부자를 모집하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연지동 실내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인 이번 축제는 자원봉사 활성화와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열리는 것으로 전북도내에서는 처음이다.

행사에는 1500여명의 개인 및 단체가 참여할 예정이고, 재능체험 부스, 재능기부 부스 등 20여개가 운영되며 체험 및 재능나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 남원시, 직원 힐링&커뮤니케이션 역량강화 교육

남원시(이환주 시장)는 6일부터 내달 4일까지 직원 480여명을 대상으로 힐링&커뮤니케이션 역량강화 교육을 한국폴리텍대학 남원연수원에서 갖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의 열린 생각, 열린 감성마인드 향상과 연계해 시민의 입장을 이해하고 시민들에게 만족할수 있는 최상의 행정서비스와 조직의 소통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60명씩 2일간 모두 8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 설립자 ‘교비횡령’ 서남대 임시 관선이사 파견

설립자의 교비 횡령 등으로 퇴출 위기에 놓인 전북 남원의 서남대에 임시 관선이사가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출신인 국회 김윤덕, 강동원, 유성엽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교육부 관계자로부터 학교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를 파견할 계획이라는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중 학교법인 서남학원 현 이사진에 대한 취임 승인 취소를 거쳐 6월 임시이사 선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설립자의 비리로 퇴출위기에 놓인 서남대의 정상화 여부가 주목된다.

/남원=백선기자 bs8787@